

한부모가족 청소년을 중심으로 한 학교적응유연성과 가족보호요인의 상관성 연구

한신애*, 한춘남**
중앙신학대학원대학교*, 고구려대학교**

A Study on the Correlation between the resilience in school lives and Family Protection Factors focusing on youths in single-parent families

Shin-Ae Han*, Chun-Nam Han**
Professor, Central Theological University*
Adjunct Professor, Koguryeo College**

요약 본 연구결과에 따른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가족지지가 학교적응유연성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은 가족기능인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가족보호요인이 학교에 대한 흥미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 변수가 되는 부모와의관계, 가족지지 모두가 유의미한 정적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가족보호요인이 학업성취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 부모와의 관계, 가족지지, 가족기능의 변수들이 특별히 유의미하게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은 밝혀지지 않았다. 넷째, 가족보호요인이 학교규범 준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살펴본 결과, 가족기능이 좋을수록 학교규범준수를 잘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한부모가족 청소년은부모와의 관계와 가족기능이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이것은 한부모가족 청소년의 학교적응에 있어 부모와의 관계, 가족기능, 가족지지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알 수 있는 것이었다.

주제어 : 한부모가족, 적응유연성, 가족보호요인

Abstract The conclusion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family support has the greatest influence on school adjustment flexibility, and the following is family function. Second, the effect of family protection factors on the interest in the school was found to have a statistically significant effect on the relationship between parents and family support. Third, the factors affecting the attitude toward the achievement of the family, the relationship with the parents, the family support, and the family function were not found to be influential. Fourth, as a result of examining the factors influencing the compliance with school norms, it was found that the better the family function, the better the adherence to school norms. In conclusion, the relationship between parents and their parents was significant. This was to know how important parental relationship, family function, and family support are in the adjustment of single parent families.

Key Words : single-parent family, resilience, Family Protection Factor

Received 13 June 2018, Revised 25 June 2018
Accepted 10 July 2018
Corresponding Author: Shin-Ae Han
(Central Theological University)
Email: 35limsangho@gmail.com
ISSN: 2466-1139

© Industrial Promotion Institute. All rights reserved. This is an open-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3.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1. 서론

최근 한국사회는 산업화가 진행된 이후 가족 제도와 기능이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다. 즉, 핵가족화가 빠르게 진행되었으며, 이혼이나 미혼 등 부정적 요인에 의한 한부모가족이 양산되고 있는 실정이다. 한부모가족은 경제적·사회적·정서적·도구적 어려움과 동시에 사회관계망의 변화까지 경험하게 된다. 따라서 가족 내 상호작용뿐만 아니라 새로운 사회적 상호작용에도 적응해야 하는 문제가 생긴다. 편모는 생활상의 어려움 이외에도 상실감이나 재혼의 문제에 이르기까지 정신적·육체적 곤란을 겪는다. 특히 한부모가족의 자녀는 부모 어느 한 쪽의 부재 이후에 오는 감정 처리나 생활의 변화에 적응해야 하는 정서적 문제와 더불어 증가된 책임량을 완수해야 하는 역할 문제, 친구와의 관계나 학업 성적에 영향을 받는 학교생활의 적응문제 등 위기적 상황에 직면한다(표갑수, 2014: 302)[16]. 따라서 한부모가족 청소년에 대한 학교적응문제는 심각한 상황에 이르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연구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한부모가족은 2016년 현재 154만 가구로 전체 가구수 대비 7.95%에 달하고 있는데, 한부모가족의 문제는 개인이나 가족구성원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문제화 되고 있다. 더구나 이 가운데 [모+미혼자녀]의 경우는 95만 가구로 한부모가족 전체 가구수의 61.8%를 차지하고 있다(통계청, 2017: 52)[13]. 이 가운데 이혼의 경우, 매년 10만 건 이상이 발생하고 있다(통계청, 각 년도)[14]. 이혼으로 인한 한부모가족은 가족구성원에 있어서 청소년이 포함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청소년 문제와 결합할 경우 매우 복잡한 양상으로 발전할 수 있다. 더구나 학교와 관련되어 여러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다. 청소년은 청소년비행, 학교폭력, 청소년 자살 등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청소년 문제가 어느 사회를 막론하고 심각한 문제로 인식되는 것은 현재의 청소년이 미래사회의 주역으로서 장차 국가의 장래를 결정할 주요한 자원이기 때문이다(김근홍, 2013: 187)[2].

이에 본 연구는 한부모가족의 가구인 청소년을 중심으로 학교적응유연성과 가족보호요인의 상관성을 연구함으로써 사회복지의 실천적 차원에서 한부모가족 청소년들의 학교적응을 돕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2. 이론적 배경

2.1 청소년문제

청소년기는 자아정체감을 확립하는 과정으로 인간발달의 필수적 시기이다. 이는 인간의 발달에 있어서도 비약적으로 성장하는 가장 중요한 시기이기도 하다. 이 시기에는 성장과정에서 성장통이 발생할 수 있다. 청소년에게는 그 나름의 욕구와 욕망이 있다. 그러나 이를 분출하는 것을 미성숙의 증표인 양 여기는 현재의 사회에서는 청소년들이 고유한 정체성을 갖고 있음을 부정한다. 또 청소년 문화는 종종 잘못된 욕구와 욕망의 분화구로 묘사되기도 한다. 청소년은 감성적으로 예민하고, 아직은 자제력이 부족한 시기이기 때문에 어떠한 유혹이나 비행에 쉽게 빠져들 수 있다. 청소년 문제에 대한 이해는 여기에서부터 시작한다. 그것은 바로 청소년이 쉽게 중독될 수 있는 유혹 또는 일탈로서의 비행을 이해하는 것이다(김지미 외, 2016: 109-110)[5].

청소년 문제가 어느 사회를 막론하고 심각한 문제로 인식되는 것은 현재의 청소년이 미래사회의 주역으로서 장차 국가의 장래를 결정할 주요한 자원이기 때문이다(김근홍, 2013: 187)[2]. 오늘날 청소년들은 사회와 가정의 환경이 급격하게 변화함에 따라 더욱 심각한 문제들을 경험하고 있다. 특히 가족의 변화에 따른 갈등문제는 성장기에 있는 청소년들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제 전통적으로 가족이 담당해온 역할을 더 이상 가정 내에서 기대할 수 없게 됨에 따라 청소년에 대한 보호와 양육 그리고 교육기능의 위기가 초래되었고, 이에 따른 사회적 책임의 필요성도 증가하고 있다. 청소년 문제는 사회문제의 하나로서 청소년이라는 특수한 인구집단과 관련된 문제로서 그 심각성과 해결의 긴급성은 더 말할 나위 없이 중요하다. 청소년 문제는 사회구조적 요인과 개인의 주변적 환경 그리고 개인의 성향이 상호작용을 일으켜 발생하는 문제로 보아야 할 것이다(최일섭·최성재, 2004: 141)[15].

청소년 문제는 다음과 같이 분류할 수 있다(김보기 외, 2016: 78-87)[4].

첫째, 청소년 비행(delinquency)은 도둑질, 살인과 같은 반사회적 행동이나 범법행위를 보이는 젊은이들(주로 18세이하)의 행동을 일컫는 용어이다. 청소년 비행은 범죄와 함께 대표적 일탈행위이다. 광의의 의미로는 일탈

행위라는 점에서 청소년 비행은 사회적 규범이나 규칙을 위반한 청소년들의 행위이며, 협의의 의미로는 청소년이 법에 의해 소년법정에서 소송의 대상이 되는 경우를 말한다. 그 예로는 무단결석, 성관계, 가출, 난폭한 행동, 통행금지 위반, 부모 불복종 등이 있다.

둘째, 학교폭력으로, 학교폭력의 원인은 학교 내외에서 폭력을 저지르는 학생은 이러한 폭력의 반복으로 인한 자학적 자아상의 형성과 또한 주변의 멸시로 인하여 결국 부정적 자아개념이 형성되어 자기 자신을 필요 없는 존재, 무능한 존재, 약한 존재로 규정하며 그러한 방향으로 삶을 이끌어 간다.

셋째, '자살'(suicide)로, 청소년은 특유의 인지적·정서적·행동적 특징으로 인해 성인들과는 다른 이유로 자살을 시도한다. 성인의 자살과 비교하여 청소년들은 외부 자극 변화에 민감하여 충동적으로 자살하기 쉬우며, 사소한 일에도 쉽게 충격을 받아 단순하게 자살하는 경향이 많다.

이외에도 약물중독, 인터넷중독, 이성문제 등 청소년 문제가 사회문제화 되고 있다.

결론적으로 청소년에 대한 왜곡된 이해는 청소년들에게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들에 대해 근원적인 오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필연적인 부작용을 야기한다. 따라서 청소년문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청소년의 관점에서 청소년의 고유한 주체성을 인정하되 그들이 성장하는 단계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2.2 한부모가족문제

한부모가족(single parents family)은 부모 중 어느 한쪽의 사별, 이혼, 유기, 별거로 인한 편부·모 등으로 이루어진 가족을 말한다(표갑수, 2014: 301). 일반적으로 한부모가족은 결합형태에 따라 부와 자녀로 이루어진 부자가족(편부가족)과 모와 자녀로 이루어진 모자가족(편모가족)으로 나누고 발생원인에 따라 사망, 이혼, 별거, 유기가족, 미혼모가족 등으로 구분하기도 한다.

한부모가족이 발생하는 가장 일반적인 이유로는 배우자와의 이혼과 별거, 유기, 사망, 자녀의 입양, 그리고 사생아 출산(미혼모) 등을 들 수 있다. 구체적으로는,

첫째, 부모집단의 유형에 따라 한부모가족을 분류할 수 있는데, 부모가 결혼을 한 관계인지 아니면 동거상태

에서 한부모가족이 된 것인지를 따진다.

둘째, 가족해체의 유형에 따라 분류할 수 있다. 즉, 배우자 사망, 이혼 또는 별거, 유기, 배우자의 장기 입원이나 장기 구속, 또는 미혼모에 의해 형성된 것인지를 구분한다.

셋째, 자녀양육을 누가 담당하는가에 따라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으로 구분할 수 있다(김보기 외, 2016:235)[4].

최근 높은 이혼율과 각종 사건과 사고로 한부모가족이 늘어나고 있는데, 자녀의 양육을 담당한 한쪽 부모는 가족을 잘 부양하기 위해 해결해야 하는 무수히 많은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 가족구조의 형태상 한부모가족은 한쪽 부모가 아버지와 어머니의 역할을 모두 수행해야 한다는 점, 부모의 피로와 고독감이 크다는 점, 자녀는 본의 아니게 자신의 성숙 수준 이상의 역할을 해야 한다는 점 등의 역기능의 위험을 안고 있다(박용순 외, 2014: 344)[6].

한부모가족은 경제적·사회적·정서적·도구적 어려움과 동시에 사회관계망의 변화까지 경험하게 된다. 따라서 가족 내 상호작용뿐만 아니라 새로운 사회적 상호작용에도 적응해야 하는 문제가 생긴다. 편모는 생활상의 어려움 이외에도 상실감이나 재혼의 문제에 이르기까지 정신적·육체적 곤란을 겪는다. 특히, 한부모가족의 자녀는 부모 부재 이후에 오는 감정 처리나 생활의 변화에 적응해야 하는 정서적 문제와 더불어 증가된 책임량을 완수해야 하는 역할 문제, 친구와의 관계나 학업 성적에 영향을 받는 학교생활의 적응문제 등 위기적 상황에 직면한다(표갑수, 2014: 302)[16]. 또한 피부양 자녀를 거느린 한부모가족의 성별 구성은 대부분 여성으로 분류되며, 평균적으로 이들 가구들은 현대사회에서 최저 빈곤층에 놓여 있음을 인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나아가 이전보다 '버림받은 아내'(deserted wives), '애비 없는 가족(fatherless families)' 혹은 '결손가족(broken homes)'과 같은 가치개입적인 용어들이 점차 사라지고 있으나, 이들은 실제 혼인 여부와는 관계없이 경제적으로 불안정할 뿐 아니라 사회적 멸시의 대상이 되고 있다(Giddens, 2013: 399)[22].

이와 같이 한국사회에서 한부모가족들은 경제적 문제를 비롯하여 자녀양육문제와 자녀교육문제, 고용문제, 주거문제, 정서적 문제 등 다양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김지미 외, 2016: 137)[5]. 이러한 복합적인 어려움 속에서 한

부모가족은 빈곤층으로 전락하는 비율이 일반가구에 비해 3배 정도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한부모가족 자녀들은 심각한 돌봄 공백 상황에 놓여 있는 것이다.

통계청(2017)에 따르면, 미혼자녀의 연령이 18세이상이 한부모가구는 446천 가구, 19세이상인 가구는 1,094천 가구이며, 2세대 한부모가구는 1,233천 가구, 그 외 세대 한부모가구는 307천 가구로 나타났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 2-1〉 세대구성별 한부모가구(2016)
(단위: 천가구, %)

구 분	전체가구	비율
한부모가족 전체가구	1,540	100
부+미혼자녀	282	18.3
모+미혼자녀	951	61.8
부+미혼자녀+기타 가구원	114	7.4
모+미혼자녀+기타 가구원	193	12.5

통계청(2017), 『2016 인구주택총조사』, 52 재구성[13].

결론적으로 한부모가족으로 인한 사회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경제적 어려움이다. 특히 모자가족이 겪는 경제적 문제에는 부의 상실로 인한 소득의 감소뿐만 아니라 주택문제, 모의 취업 문제 등이 포함된다(조홍식 외, 2010: 245)[12]. 더구나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경우 그 고충은 더욱 크다. 이러한 어려움은 단순히 경제적인 측면만이 아니라 가족구성원의 정서적·사회적 측면은 물론 가족관계에 영향을 미친다.

둘째, 사회적 편견과 차별로 인한 문제이다. 한국사회는 기본적으로 가족이란 '정상 가족'을 전제로 한다. 즉, 한부모가족은 '비정상 가족'이 되는 것이다. 가족구성원은 다양한 경로의 원인으로 한부모가족이 된 후부터는 온전하지 못한 가족 또는 무엇인가 문제가 있는 가족으로 사회적 편견과 차별 속에 살아가게 된다. 이는 자녀에 대한 낙인으로 이어진다(김보기 외, 2016: 236)[4].

셋째, 자녀양육의 문제이다. 한부모가족의 부(모)는 정서적으로 안정되지 못한 어린 자녀를 돌보아야 하는 부

담을 안고 있다. 이혼, 사고, 사별의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상태에서 자녀를 보육해야 하기 때문에 한부모가족에서는 신체적, 언어적, 정신적, 성적 학대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김경우 외, 2012: 173)[1].

넷째, 정서적 혼란을 들 수 있다. 한부모가족의 부(모)는 정서적으로 우울감, 좌절감, 상실감, 배신감, 분노감, 실책감 등을 느끼는데, 이러한 혼란은 초창기에 지속되어 적응에 어려움을 주기도 하며, 정서적 혼란이 깊어지고 우울이 심해지고 자살로 이어져 자녀와 함께 동반 자살을 시도하는 등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김경우 외, 2012: 173)[1].

2.3 한부모가족 청소년의 보호요인

이혼가정 청소년들에게 보호요인으로 작용하는 개인적 요인들로는 자기효능감과 대인관계기술 등이 있다. 자기효능감은 적응유연성의 가장 중요한 요소로 개인과 환경에 대한 확신과 자신을 통제할 수 있고, 삶의 도전을 다룰 수 있는 능력에 대한 개인적인 감정의 중요성을 강조한다(김민강, 2009: 21)[3].

Bandura는 개인이 어떤 과제를 쉽다고 생각하면 자기효능감 기대가 높아진다고 보고 있으며, 능력에 성공을 귀인 시킬 때 자기효능감이 높아진다고 보고 있다고 하였다(Bandura, 1977: 122-147)[19]. 이러한 자기효능감은 학업성취 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진로계획, 학교생활의 적응까지도 영향을 미치고, 자기효능감이 높은 이혼가정 청소년의 경우 자기효능감이 낮은 이혼가정 청소년에 비해 내면적 문제가 낮게 나타났다.

Wierson과 Forehand는 한쪽 부모와의 온정적이고 지지적인 관계가 유연성을 얼마나 증대할지에 대한 여러 가설들을 제시해왔는데, 그 중 하나는 부모와의 지지적인 관계가 자녀에게 안전감을 느끼게 할 것이며, 부모에게 적절한 훈육을 촉진해줄 것이라고 한다(박현선, 1998: 26 재인용)[7]. Menaetal 외는 가족의 지지구조가 스트레스적인 사건에 대해 도와주고, 효과적인 대처전략을 개발함으로써 통제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가족 구성원간의 의사소통을 통하여 불안을 경감시킨다는 사실을 발견했다(박현선, 1998: 26 재인용)[7].

Gelman에 따르면, 이혼 가정 청소년에게 영향을 미치는 가족 외 사회적인 요인들로는 부모 이외의 성인 양육

자와의 접촉, 사회적인 지지 등이 있다. 가족 외적인 자원 들은 조부모, 다른 친척들, 상담 기관 직원들 및 교사들, 그리고 친구들을 포함한 최소한의 어떤 관심을 받는 것이다. 이혼보다는 다른 영역의 유연성에 대한 많은 연구 들에서 청소년과 성인간의 진실한 관계가 보호요인으로 매우 중요하다고 알려졌다(Gelman, 1991: 44-47)[21].

Santrock과 Warshak은 별거 부모, 친척들, 보호시설 양육자, 교사 등 가족 외 의 성인 지지자와의 접촉의 양 이 부모의 이혼 후 청소년의 기능과 긍정적으로 관련이 있음을 알아냈다(Santrock & Warshak, 1991: 112-125)[24].

한미현은 “사회환경이 학교와 가정으로 국한되어 사회적 활동 범위가 비교적 좁은 학생들은 제한된 지지망을 가지게 되므로 교사는 학교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학생들의 삶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학생에게 중요한 사회적 지지원이 된다(한미현, 1995: 45)[17]”고 하였다. 특히 교사의 관심과 온정은 이혼 후 청소년의 긍정적인 적응에 연관되었음을 알 수 있다.

Cowen 외는 가족 외의 성인과 청소년이 친구들로부터 받는 사회적 지지의 정도가 이혼 후 청소년의 적응에 관련됨을 알아냈다. 그에 따르면, 또래는 집단규범과 학업성취에 대한 기대를 만들어냄으로써 적응유연성을 촉진할 수 있다(김민강, 2009: 23 재인용)[3].

Rutter에 의하면 위기는 강하든 약하든 장애를 직접적으로 이끄는 반면, 보호과정은 위험요인과의 상호작용을 통해서만 그 효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간접적으로 작용한다. 따라서 위기와 보호의 심리적 과정들이 중요 측면에서 다를 수 있으며 보호라는 용어는 위기상황에서 그 기능을 발휘한다고 하였다. 그는 이렇게 위기요인과 보호요인 간의 상호작용적 특성을 강조하면서 중요한 것은 개인이 어떻게 위기에 반응하는가 하는 것으로 이것들을 요인이나, 변인이라고 하기보다 보호 과정 혹은 기제로 표현하고 이해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하였다(Rutter, 1990: 26)[23].

결론적으로 한부모가족 청소년의 보호요인은 청소년이 위험요인에 노출되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부정적인 영향력을 중재하거나 완화시켜 문제행동의 확률을 낮추는 역할을 하는 요소라고 본다.

2.4 학교적응유연성

부모의 이혼으로 인하여 청소년이 학교 부적응을 경험하기도 한다. 부모의 이혼이 청소년 자녀의 전체 생활에 영향을 주어 학교에서의 무단결석이나 퇴행, 사회적 위축, 불안의 원인이 되기도 하고 이혼가정의 청소년은 비이혼가정의 청소년에 비해 학교적응을 잘 하지 못한다. 즉, 정상가정 청소년보다 편부모 가정 청소년이 친구문제와 학교생활에서 스트레스를 더 받는데 이들은 스트레스를 적게 받는 청소년보다 친구관계를 쉽게 맺지 못하고 내성적이며 혼자 있기를 좋아하고, 자기 물건을 부수거나 신체 부위를 물어뜯는 등 상호작용을 회피하는 성향과 자기 파괴적인 성향이 강한 것으로 나타나고, 또 교사에게도 반항적이며 친구들에게도 공격적인 행동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교사가 갖고 있는 이혼가정 청소년에 대한 낮은 기대감이 청소년의 학교생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한다. 이혼가정 청소년이 학교적응에 어려움은 교사가 갖고 있는 이혼가정에 대한 편견 때문이기도 하다. 교사는 이혼가정 청소년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으며, 이혼가정 청소년들의 잠재적인 문제이나 비행아로 보는 경우가 많다(장경아, 2008: 21-22).

이혼가정의 청소년은 일반가정의 청소년보다 정신건강이 나빠며, 자아존중감, 생활만족도, 사회성이 낮게 나타났다. 또한 비이혼가정의 청소년보다 이혼가정의 청소년이 학교에서의 적응력, 대인관계에서 많은 문제점이 나타났다. 하지만 청소년의 학교부적응을 예측하기 위해서는 가족 기능이 고려되어야 한다. 따라서 긍정적인 부모-자녀와의 관계가 또래와의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또래관계의 중요성은 학교환경 또한 청소년의 사회화를 위한 중요한 환경으로 이어지며, 교사와의 긍정적인 관계 및 학교생활의 적응은 청소년 발달의 중요한 원천이 된다. 또한 교사와의 관계가 좋지 않을수록 청소년의 문제행동은 증가하게 되며, 또래와 원만하게 지내는 청소년은 내면화와 외면화라는 도피적인 전략을 적게 사용하고, 사회적 지원을 찾거나 자기 자신을 믿고 문제를 해결하려는 적극적인 의지의 접근 전략을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Rutter, 1990: 26)[23].

이혼 후 적응에 관한 가장 일반적이고 일관성 있는 연구 결과는 자녀들이 보이는 행동적응의 문제이다. 이혼

가정 청소년들이 비이혼가정의 청소년들 보다 공격성, 행동 장애와 같은 행동적응 문제에서 더 높은 수준을 보이기도 한다. 특히 이혼 가정의 남아가 비이혼가정의 남아보다 충동성/과잉행동, 그리고 반사회적 행동과 가출, 퇴학, 비행 등의 문제를 더 많이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혼가정 청소년들의 적응의 어려움에 관한 국내의 연구를 살펴보면 많은 국내 연구에서 이혼가정 청소년이 비이혼가정 청소년과 비교하였을 때 더 높은 우울/불안을 보인다고 보고하고 있다. 반면에 이혼가정과 비이혼가정 청소년 사이에 우울/불안의 차이는 없다는 연구도 있으나 많은 연구에서 이혼가정 청소년의 우울/불안의 정도가 높다는데 동의하고 있다. 행동적응에 관한 연구를 살펴보면 이혼가정 청소년이 성적에는 유의미하지 않으나 규범 준수, 학교에 대한 흥미 등에서 비이혼 가정 청소년 보다 적응 정도가 낮다고 보고하였고, 이혼가정 청소년이 더 공격적이고, 사회적으로 위축되고 있음을 보고하고 있다(이가은, 2008: 18)[9].

그러므로 한부모가족 청소년의 적응을 보다 잘 이해하고 부모역할의 중요함을 강조함과 동시에 한부모가족 청소년의 학교적응을 위해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잘 파악하여 자원을 개발하고 더욱 강화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그리고 한부모가족 청소년에 대한 복지정책적 접근과 청소년이 직접 생활하는 학교에서의 적응을 도울 수 있는 프로그램을 설정하고 개발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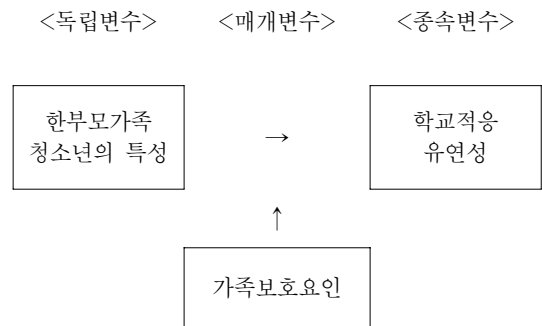
3. 연구 방법 및 절차

본 연구의 대상은 한부모가족에 해당하는 경기 성남 지역에 재학 중인 고등학교 1학년을 모집단으로 하였다. 예비조사는 2016년 11월 연구자가 100명의 학생을 임의 표집하고 설문지를 배부하여 작성하게 한 후 내용에 적합하게 응답한 89명을 표본으로 하였다. 특히 설문지 작성시간을 점검하고 질문의 뜻이 모호하거나 이해하기 어려운 문항들을 선별하여 설문지를 수정, 보완하였다.

설문 내용은 인구사회학적 특성 10문항, '부모님과 의 관계' 12문항, '가족이 나를 대하는 태도' 6문항, '가정 분위기' 12문항, '학교생활' 22문항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수집된 자료는 논문 작성의 핵심인 툴(SPSS

Statistics/AMOS)을 활용하여 데이터를 분석하였다.

연구모형은 한부모가족 청소년의 특성을 독립변수로 하고, 학교적응유연성을 종속변수로 하였으며, 여기에 영향을 미치는 매개변수를 보호요인으로 설정하여 연구하였다.



[그림 3-1] 연구모형

4. 연구결과

한부모가족 청소년의 가족보호요인이 학교적응유연성에 미치는 영향은 다음과 같다.

4.1 학교 적응에 미치는 영향

모든 독립변수를 투입하여 종속변수인 학교적응과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회귀모형 적합도인 F값은 71.672로 $p < .001$ 수준에서 유의미하였다. R^2 는 .717로 학교적응에 대해 71.7%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나 회귀모형은 종속변수인 학교적응유연성에 대해 71.7%의 설명력을 갖는다고 할 수 있다.

학교적응유연성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은 가족기능($\beta = .374$)가 $p < .01$ 수준에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지지가 $p < .01$ 수준에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의 상대적 설명력을 알아보기 위해 비교해보면 가족지지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고, 다음은 가족기능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4-1〉 가족보호요인이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 (n=89)

종속변수: 학교적응			
	B	S.E	β
부모와의 관계	6.241E-02	.067	.080
가족 기능	.346	.114	.374**
가족 지지	.944	.309	.438**
Constant		34.199	
R ²		.717	
F		71.672***	

*p < .05, **p < .01, ***p < .001

4.2 학교에 대한 흥미에 미치는 영향

학교에 대한 흥미에 유의미한 영향력을 갖는 변수는 부모와의 관계, 가족지지로 나타났으며 부모와의 관계는 p<.01수준에서 가족지지는 p<.01수준에서 유의미한 정적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2〉 가족보호요인이 학교에 대한 흥미에 미치는 영향 (n=89)

종속변수: 학교에 대한 흥미			
	B	S.E	β
부모와의 관계	.102	.043	.225*
가족 기능	9.792E-02	.074	.182
가족 지지	.574	.201	.460**
Constant		2.886	
R ²		.646	
F		51.680 ***	

*p < .05, **p < .01, ***p < .001

4.3 학업성취에 대한 태도 미치는 영향

학업 성취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살펴본 결과, 특별히 유의미하게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은 밝혀지지 않았으며, 모형적합도는 p<.01정도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이는 이혼가정 청소년들의 학업성취에 대한 태도에 있어 부모와의 관계, 가족기능, 가족지지의 변수들의 영향력이 그다지 크게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써, 이들의 학업성취에 대한 태도에 긍정적, 혹은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보다 다양한 요인들을 발견해야 함을 시사하고 있는 것이다.

〈표 4-3〉 가족보호요인이 학업성취에 대한 태도 미치는 영향 (n=89)

종속변수: 학업성취에 대한 태도			
	B	S.E	β
부모와의 관계	-4.0E-02	.026	-.229
가족 기능	4.506E-02	.045	.217
가족 지지	.142	.121	.294
Constant		9.813	
R ²		.138	
F		4.536**	

*p < .05, **p < .01, ***p < .001

4.4 학교규범 준수에 미치는 영향

학교적응유연성의 또 다른 다른 하위요인인 학교규범 준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살펴본 결과, 가족기능이 p<.01수준에서 유의미한 정적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 가족 기능이 좋을수록 학교규범준수를 잘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4〉 가족관련요인이 학교규범 준수에 미치는 영향 (n=89)

종속변수: 학교규범 준수			
	B	S.E	β
부모와의 관계	8.861E-04	.035	.003
가족 기능	.203	.060	.519**
가족 지지	.228	.162	.251
Constant		21.500	
R ²		.565	
F		36.785***	

*p < .05, **p < .01, ***p < .001

5. 결론: 요약 및 제언

본 연구는 최근 증가 하고 있는 이혼가정을 중심으로 한 한부모가족 청소년의 가족보호요인이 학교적응유연성 정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결과에 따른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가족보호요인이 학교적응유연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에 있어서,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가족지지가 학교적응유연성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

로 나타났으며, 다음은 가족기능인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가족보호요인이 학교에 대한 흥미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 변수가 되는 부모와의관계, 가족지지 모두가 유의미한 정적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가족보호요인이 학업성취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 부모와의 관계, 가족지지, 가족기능의 변수들이 특별히 유의미하게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은 밝혀지지 않았다.

넷째, 가족보호요인이 학교적응유연성의 또 다른 하위 요인인 학교규범 준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살펴본 결과, 가족기능이 유의미한 정적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 가족 기능이 좋을수록 학교규범준수를 잘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한부모가족 청소년은부모와의 관계와 가족기능이 유의미하게 나타났으며, 학교에 대한 흥미에 유의미한 영향력을 갖는 변수는 부모와의 관계, 가족기능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학교규범 준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살펴본 결과 가족기능이 정적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한부모가족 청소년의 학교적응에 있어 부모와의 관계, 가족기능, 가족지지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알 수 있는 것이었다. 그러므로 한부모가족 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시 부모와의 관계와 가족기능, 가족지지가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를 통해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주로 한부모가족 청소년의 가족보호요인과 학교적응의 관계를 살펴보았는데, 개인적 요인과 사회 환경적 요인도 같이 파악하여 그들의 강점을 강화시켜 줄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둘째, 한부모가족 청소년의 적응향상을 돕기 위한 프로그램에 아동의 개인적 특성 요인을 보고 강점을 향상시키는 요소가 포함되는 것이 필요하다. 가족의 프로그램들이 부모의 이혼에 대한 감정을 인식하고 표현하고, 의사소통과 문제해결 방법과 이와 더불어 아동의 자기효능감에 대해 인식하고, 미래의 목표에 대한 의식을 뚜렷하게 해줌으로써 부모이혼으로 인한 부정적인 영향들을 완화시킬 수 있고 더욱 진취적인 자세를 갖게 해 줄 것이다.

셋째, 한부모가족의 청소년에 대한 부정적인 선입견을 극복할 수 있게 해 주는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학교 교과과정 속에서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

References

- [1] 김경우 외(2012). 『가족복지론』. 서울: 창지사.
- [2] 김근홍 외(2013). 『사회문제론』. 서울: 신정.
- [3] 김민강(2009). “이혼가정 아동의 학교적응유연성과 관련된 보호요인 탐색”. 부경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4] 김보기 외(2016): 『최신사회문제론』. 파주: 양서원.
- [5] 김지미 외(2016). 『사회문제론』, 파주: 경기: 정민사.
- [6] 박용순 외(2014). 『사회문제론』, 서울: 학지사, 2014.
- [7] 박현선(1998). “빈곤청소년의 학교적응유연성”.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8] 신명희 외(2013). 『발달심리학』. 서울: 학지사.
- [9] 이가은(2008). “이혼가정 부모의 양육행동이 청소년 자녀의 적응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10] 이소희 외(2005). 『청소년복지론』. 서울: 나남.
- [11] 장경아(2008). “한부모 가정 자녀의 학교적응에 미치는 가족보호요인의 영향에 관한 연구: 이혼가정을 중심으로”. 위덕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12] 조홍식 외(2010). 『가족복지학』. 서울: 학지사.
- [13] 통계청(2017), 『2016 인구주택총조사』.
- [14] 통계청(각 연도), 『인구동향조사』.
- [15] 최일섭·최성재(2004). 『사회문제와 사회복지』. 서울: 나남
- [16] 표갑수(2014). 『사회문제와 사회복지』. 서울, 나남, 2014.
- [17] 한미현(1996). “아동의 스트레스 및 사회적 지지 지각과 행동문제”.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6.
- [18] 현승일(2012). 『사회학』. 서울: 박영사.
- [19] Bandura, A. Self-Efficacy Mechanism in human agency. American Psychologist, 1977, 37 : pp. 122-147.
- [20] Garnezy, N. Children in poverty. Psychiatry, 1993, 56 : pp. 127-136.
- [21] Gelman, D. Themiracleofresiliency. Newsweek, 1991, 117(26) : pp. 44-47.
- [22] Giddens, A. Sociology, Cambridge : Polity Press, 2013.
- [23] Rutter, M. Commentary: Some fous and Process

considerations regarding effects of Parental depression on children. *Developmental Psychology*, 1990, 26 : pp. 60-67

[24] Santrock, J. W.& Warshak, R. A. Father custody and social development in boys and girls, *Journal of SocialIssues*, 1979, 35 : pp. 112-125.

한 신 애(Han, Shin-Ae)



- 연세대학교 연합신학대학원 졸업
- 중앙신학대학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박사
- 중앙신학대학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 새소망복지센터 대표
- 관심분야 : 청소년복지, 노인복지, 복지상담, 기독교상담
- E-Mail : hsin2000@hanmail.net

한 춘 남(Han, Chun-Nam)



- 한양대학교 행정대학원 행정학과 석사
- 중앙신학대학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박사
- 경북대학교 의료복지학과 겸임교수
- 고구려대학교 사회사업복지학과 겸임교수
- 관심분야 : 사회복지, 의료복지, 자원봉사, 청소년복지, 노인복지, 사회복지행정
- E-Mail : estherhcn77@hanmail.net